

in Who?

2022년 12월 Vol. 6



인후생활문화센터



인후생활문화센터는

일상 속 생활문화 실현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동호회활동,
각 기관별 연계사업, 체험프로그램, 인문학강좌,
10,000여권의 도서를 비치한 작은 도서관 등을 상시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채롭고 풍성한 생활문화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Contents

- 04 생활문화플러스
- 누구네 N차 점빵
 - 문화거리 60
 - 내가 잊은 새로운 세상
 - 희희낙락 嬉嬉朗讀, 오디오북 창작자 과정
 - 2022생동감 ‘사드락 사드락 생활문화’
 - 계단갤러리 & 전시

- 20 With 인후
- | | |
|-------------|---------------------|
| • 모네의정원 | • 전라글월 |
| • 콘크리에이터 | • 도당산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 |
| • 꽃들에게 희망을 | • 다정한 책갈피 |
| • 인후동 시 낭송회 | • 더 안골 |
| • 기린동네예술노리단 | • 육학년일반 |

- 25 Makers 인후
- | | |
|--------------|------------|
| • 석고방향제&디퓨저 | • 친환경 샴푸바 |
| • 유리공예 냄비 받침 | • 마크라메 도어벨 |
| • 가죽공예 토트백 | • 쿼트 토끼키링 |
| • 다육이 미니정원 | • 가을을 입다 |

33 책마을

- 34 독서문화플러스
- | | |
|-----------------|---------------------|
| • 시간 관리의 달인 | • 4월 23일 책의 날!! |
| • 책과 함께하는 살림이야기 | • 우리는 자라나는 꿈나무! |
| • 신나는 여름방학 | • 마음만은 벌써 한가위 송편만들기 |
| • 한 잔 할래요? | • 낭독콘서트 ‘마당을 나온 암탉’ |

42 2023년도 인후생활문화센터 문화강좌

43 인후사용설명서

2022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누구네 N차 점빵



!?
기획자
한마디

사전 기획회의부터 난관의 연속이었던 '누구네 N차 점빵'

「새활용 실무자 워크숍 '새활용 가치하자」에서 받았던 교육으로 새활용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일반적으로 시도하기 쉽지 않다는 결과를 얻고 걱정이 앞섰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코로나19 이후 지역주의 대면 강의도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획 의도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봐 잠도 오지 않았어요. 5회 이상 이어진 회의 속 함께 해주신 협력단체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연결될 수 있게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즐겁게 사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내년에 더 유익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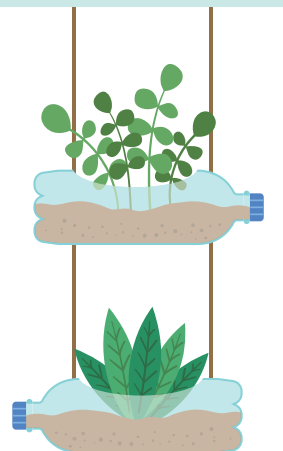
지구를 살리는 생활 속 실천 공동체



코로나19 이후 멀게 생각했던 환경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범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요구되었다. 각 지역에서도 자율적이고 자생적 생활문화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환경 조성 and 활동 확산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동부집강소는 기존 문화예술의 단순 장르에서 벗어나 주민, 동호회, 공방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의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생활문화=일상(삶)'에서 실천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새활용 아이디어를 공유 및 실험해 보았다.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소통하며 지역 문제를 생활문화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생태공감 생태 활력 생생집강소 동부 집강소



생활문화 주체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생활문화 운동으로 전개하고 지역민의 안전한 삶, 문화로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전주 문화재단을 비롯한 5개 생활문화센터(효자, 삼천, 진북, 인후, 우아)가 함께 권역별 특징을 살려 생활문화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추진 모델을 정착시키고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패브릭 새활용 아이디어 실험 특강강사 - 송인숙

‘새활용 아이디어 실험’ 강의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새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낡은 것을 다시 사용하는 새활용에 관심이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지역의 많은 사람이 관심도 있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도 넘치지만, 몰라서 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작은 노력이 계속 모여지며 즐거운 일이 계속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활용 아이디어 실험

1 정리수납

3가지 아이디어 실험(정리수납, 목공, 패브릭)으로 16회에 걸쳐 진행된 이 실험은 처음 구성부터 운영까지 협력단체와 주민들의 많은 회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지역의 의제에 공감해 주신 분들의 입소문을 통해 홍보 전부터 이어진 참여문의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었다. 기존에는 개인의 물건을 제작하는 것 위주였다면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아휴. 살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힘든 게 정리야!! 정리”
“집이 좀처럼 깨끗하지 않다니까”
“이참에 버릴 것 버리고, 깔끔하게 살면 좋겠다.”
“버릴 수는 있고?”
“여기에 뭐 생긴다잖아~ 필요한 사람들 주면 되지!”
“살림에 필요한 것도 뭐 만든대요.”



2 목공

집 안 구석구석 추억이 녹아 있는 오래된 가구는 버리기엔 아깝고, 수리해서 다시 쓰기엔 유행도 지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법을 알지 못해 선뜻 도전하기 힘들다. 목공은 인후동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많은 사람이 도구의 사용법을 이해하여 오래도록 재사용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개인 및 공동 작업을 통해 목재의 성격을 이해하고 각 협력단체에 놓일 ‘pop up store 나눔가게’ 진열대를 제작하면서 목공 관련 도구의 쓰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 우리 아들 태어날 때 만든 의잔데.. 벌써 이렇게 낡았어요. 버리긴 싫은데..”

“집에 결혼할 때 산 가구 손잡이가 떨어졌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쓰는지 배워 보려고 근처에 사는 고교 동창생이랑 같이 왔어요.”

“깜짝이야! 드릴 소리가 꽤 크게 나네요.”



인후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된 4회 동안 주방, 침구, 옷장을 정리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집에서 하나씩 실습해 보며 집에 있었는지도 모를 물건을 가져와 ‘Pop up store 나눔가게’를 통해 새로운 주인에게 쓸모를 다할 수 있게 했다. 각 주차별로 근처 커피숍에서 얻어온 커피 찌꺼기로 만든 천연방향제, 주방 기름때에 탁월한 매직물티슈, 버려지는 생수 페트병으로 만드는 가성비 제습제 까지 살림에 도움도 되면서 쓰레기로 취급되는 것들도 적절히 새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지 많은 인기를 얻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계속되는 요청에 협력단체인 인후비전작은도서관에서 Encore로 새로운 참여자와 4회를 진행하면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만들어 주신 모든 사람에게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동네 유희공간에서 이뤄진 이번 새활용 실험은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없이 습기와 싸워가며 마스크를 쓰고 진행되었다.

흐르는 땀방울에도 눈을 반짝이며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4회의 즐거운 시간!!



“20대 때 혼자 살면서 책꽂이 같은 것을 조립해 보긴 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배운 것은 처음인데 너무 즐거웠어요.”
“목공 하는 금요일이 늘 기다려졌어요. 다음에도 이런 수업이 개설되면 꼭 신청하고 싶어요.”
“나이 먹어서도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에 너무 좋았어요.”
“몇 번이나 했는데도 할 때마다 재미있고 더 배워보고 싶어요.”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문화에 대한 즐거움과 소소하지만, 지역의 작은 의제에 관심을 두게 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③ 패브릭

과거엔 옷이 참 비싸고 귀했다. 과정이 복잡하고 기계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 한 땀 한 땀 바느질해가며 옷을 짓고, 수선해서 입었던 탓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패스트 패션의 등장은 의류의 과잉 생산과 빠른 유행으로 이어져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입하고 버려지며 수질 오염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까지 유발한다. 이러한 문화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더 이상 번거롭게 옷을 고쳐 입지 않지만 작은 솜씨만으로도 잠자고 있는 옷장 속 옷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이고. 눈도 안 보여서 바늘에 실도 못 꿰겠어.”
 “옛날엔 가정시간에 이런 것 가르쳐 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것 배우나?”
 “재봉틀부터 쉽고 간단한 것 천지인데 이런 것 배우려고 하겠어?”
 “그러게.. 배운 것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집마다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 모두 가지고 있는 아이템!! 바로 청바지!!!
 유행이 지나 입지 않고 모셔만 두고 있는 청바지를 4회에 걸쳐 다양한 소품으로 바꿔보았다.



“이거 어때? 귀엽지 않아?”
 “우리 손녀딸 주면 딱 좋겠네.”
 “얼룩덜룩 지저분해서 못 쓰고 있던 예코백인데 주머니가 생기니까 더 좋아졌네.”
 “그런데 이거 뭐 누가 쓰거나 하려나?”
 “백화점 들고 가게? 여기저기 가볍게 들고 다니기에 딱 맞고만!”
 1개의 청바지로 액세서리, 예코백 꾸미기, 주머니까지 최대한 활용하여 각자의 개성이 담겨있는 작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Pop up store 나눔가게



동부권역은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에서 비롯된 오랜 집콕 생활 속 배달과 포장으로 증가한 각종 쓰레기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Pop up store 나눔가게! 나에겐 필요 없는 물건이 정리수납 4회차에 걸쳐 십사일반 모아져 1,000원 ~5,000원 사이의 가격표가 붙었다.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나눔가게는 누군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 그 쓸모를 다하고 지불된 값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좋은 일에 사용될 예정이다.

“처음 자취를 시작하고 이것저것 예쁘다고 구입했는데 생각보다 쓸모가 없어서 누군가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기부합니다.”
 “여기저기 받은 사은품이 많았는데 매번 모아놓기만 하고 나중엔 어디에 있는지 찾지도 못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가면 좋을 것 같아 가져왔어요.”
 “인문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만들어 본 커피 캐리어 카드지갑이에요.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눔가게와 함께 나눕니다.”



협력단체에 함께 설치되었던 나눔가게 2호에서도 저마다 제각각의 물건으로 가득해졌다. 처음엔 ‘오히려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까?’ 우려했던 것과 달리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남은 물건들은 이번에 새롭게 연결된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시민 전체를 주인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지역의 플랫폼 간 연결뿐만 아니라 유대감 형성 및 네트워크 확장으로 이어진 이번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냉장고를 부탁해

매해 음식물 쓰레기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권위 있는 경제지에서도 매년 버려지는 음식의 값어치를 2조 6천억 달러(한화 2,880조 원)로 추산하고 있지만 사실 일상에서 현실감 있게 느껴지진 않는다.

그저 우리 집 냉장고를 열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상해서 버리는 식재료와 음식들이 아깝게 쓰레기장으로 향할 때, 가득 찬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약 15,9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다. 이는 전체 생활 폐기물 하루 발생량 53,490톤의 30%를 차지한다.



성과공유회



가장 오래된 옷 자랑대회

고민지 : 이게 30년 전 시누이가 시집갈 때 해준 선물이에요. 그런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제가 차고 온 이 브로치가 다음 달에 결혼할 며느리가 준 거예요.

이영주 : 제가 겨울에 애용하는 니트 카디건이 20년 되었는데 세탁기에 빨아도 돼요. 그런데 딸이 "엄마! 자꾸 헌 옷을 입어. 새 옷도 많은데.."라며 타박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요. 20년 동안 내내 본 옷이니까요. (웃음) 아직도 제 마음에는 새 옷인데.

박소영 : 이 가족 재킷은 첫 월급 받고 구입해서 남편이랑 처음 만날 때 입었어요. 지금은 살도 붙고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작아졌지만 버릴지 못하겠어요.

곽삼례 : 애가 셋인데 막내를 낳고 나에게 주는 보상으로 비싼 무스탕 하나를 샀어요 나중에 안쪽이 다 삭아서 버리려고 하면 막내가 자꾸 주워 와서 입더라고요. 지금은 입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렸는데도 선뜻 내놔지지 않네요.

각자의 냉장고에 있는 풍부한 식자재를 모아 남기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집마다 다른 레시피를 공유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묵은 김장 김치. 집에서 직접 만든 수제 도토리묵, 텃밭에서 수확한 무공해 가지와 호박, 집에서는 아무도 안 먹어도 같이 먹을 땐 너무 맛있을 부각까지 재료가 한 아름이다.

"제가 파리고추랑 스팸 볶아볼게요."
 "그럼 제가 채소랑 그릇 씻어 놓을게요."
 "저는 재료 손질을 맡을게요."
 "고등어 잘 안 먹는데 이렇게 요리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양념장이랑 완성했는데 맛보실 분?"

남편은 회사, 아이들은 학교에 있어 혼자 먹는 점심에 익숙한 주부들이 오랜만에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제대로 차려 놓고 먹는 밥상이었다. 예상 시간보다 훨씬 빨리 끝나 플레이팅도 신경 써서 1층의 주민센터 직원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나눈 훈훈했던 현장! 참여자가 직접 제안한 재미있지만, 의미 있는 특강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생활문화와 환경 그리고 공예

주민들을 위해 체험과 전시를 계속 선보이기만 했던 협력단체에게 지역에 더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였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작가 도자기, 자개 체험을 진행하며 올해 사업에 대한 간단한 피드백을 나누기도 했다.

"2022년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곳! 날마다 오고 싶은 곳!!"
 "한 해 동안 인후생활문화센터에서 힐링을 많이 했어요. 내년에도 멋진 프로그램 함께하고 싶어요."
 "전주시민에게 기회와 행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생태공감 생태활력 생생축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10월의 주말!

전주문화재단과 5개 생활문화센터 및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협력단체가 전주시청에 모였다. 그동안 각 권역에서 활동한 내용을 보여주고 더 많은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된 축제로 전시, 체험, 공연, 플리마켓 등으로 다채롭게 준비되었다.

타 권역의 협력단체는 전해 듣기만 했지 실제로 볼 일이 없었는데 새로운 교류를 나누는 네트워크의 장이었다.



"기후위기가 주머니가 되도록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보면 어떨까요?"

"물을 드실 수 있는 음수대를 마련하되 컵과 같은 일회용품 대신 용기를 빌려보면 어떨까요?"

"전시도 최대한 지형 상태를 고려해서 진행해 봐요."

"그럼 저희가 축제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면 좋을까요? 체험? 공연?"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축제는 기점놀이보존회의 오프닝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생활문화동호회, 지역 공방, 생활문화인 등이 모여 사업 활동 반경을 확대하고 제대로 된 축제를 느끼지 못했던 시민들과 함께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생활문화 향유하고자 화창한 날씨 속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선생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휴~ 팀장님! 별소리를 다하네. 우리도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공연도 보고 다른 곳들은 어떤 것 하나 구경도 하고 너무 좋네."

"애들이 그린 그림도 너무 귀여워요!"

"다음에 이런 플리마켓 열리면 꼭 연락 주세요. 시간만 되면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함께해요~~

문화거리 60



2020년부터 진행되었던 문화거리 60을 '환경과 생활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체계화해 다양한 장르의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인, 지역공방과 함께 진행하였다. 단위사업 간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특색 있는 문화거리를 만들기 위해 3회에 걸친 문화거리를 참여자가 직접 구성하고 기획해 보았다.



"이번엔 주제가 환경이니깐 되도록 쓰레기를 만들지 말고 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저희는 3회를 각각 다른 체험으로 한 번 구성해 볼게요."

"캘리그래피팀은 전시와 체험을 나눠서 진행할게요."

각 팀원 마다 되는 시간이 다 달라서요."

"이번엔 환경에 관련된 워크숍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문화거리 1차는 인후동 동네 축제 중 하나인 "안골콘서트"와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아름다운 가게', '비전원격평생교육원' 등 기존 협력단체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합류한 지역의 커뮤니티가 일상 속 지나가는 짧은 거리에서 만나는 다채로운 지역문화예술을 만들고 이를 통해 누구든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표 표

"이건 뭐예요? 구입하면 뽕기 해볼 수 있어요?"

"별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즐겁게 즐기라고 준비했어요."

"우와!! 나 1등이야!! 옛날 장난감이네~ 귀여운 먹거리도 들었고!!"

"업사이클링 가죽공예는 뭐예요?"

"자투리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지갑, 필통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가게에서 물건 사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기증도 할 수 있네요."

"집 근처에 평생교육원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그렇지 않아도 뭐 배워보고 싶었는데 상담 한 번 받아봐야겠어요."

문화거리 60 - 전문특강

헛갈리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우리나라의 분리수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재활용품이라고 수거해 가서 살펴보면 쓰레기가 80%에 재분류하고 세척하는 데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버리는 것을 처리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재활용 하는 비용이 더 높은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도 재활용이 안 되나요?”

“색깔이 들어가거나 로고가 새겨진 것도 항상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에 버렸는데..”

“PE, PT...플라스틱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도 처음 알았어요.”



축제와 환경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쓰레기에 비하면 생활 쓰레기는 귀여운 수준이다. 하지만 지역마다 열리는 수많은 축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000명 기준 100L 종량제 봉투 150개가 쌓인다고 한다.

쓰레기 없는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고민 끝에 모신 지역 전문가 ‘만큼’ 이지연 대표의 강의를 통해 작은 실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거절하기, 줄이기, 재사용하기, 재활용기, 썩히기...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콩기름으로 만든 포스터 용지! 참신한데 우리 지역엔 없지 않나?”

“친환경 워크숍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환경 어택도 신기하고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생생축제 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예와 재활용 - 비닐클링 프로젝트

생활 속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비닐을 여러 가지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소재로 탈바꿈 시켜 자신의 개성과 취향에 맞는 원단으로 DIY해보고 재활용 제품으로 재탄생 시켜 보았다. 간단하지만 생각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쓰모품”으로 확장해 갈 방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



2022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내가 잊은 새로운 세상



「2022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은 지역의 생활문화시설과 인문전문가 협업을 통한 자생적 인문활동 촉진과 지역문화시설 기반의 인문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생활밀착형, 지역친화적, 사회문제 해결형 등 다양한 인문활동 모델 구축과 인문전공자의 지역 기반 활동기회 제공으로 우수인력의 사회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아이들은 호기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본 세상은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다. 하지만 자라면서 세상은 너무 익숙한 것이 되고 우린 점차 아이의 마음을 잊고 산다.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마음에 따라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혹은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한다. 익숙함에 묻힌 사소한 특별함을 찾아내는 인문미술프로그램 “내가 잊은 새로운 세상”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26회를 2차로 나누어 진행된 위 프로그램은 다양한 미술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났다.

“이것 좀 봐요. 너무 예쁘죠? 사진은 진짜 별론데 이걸 좋아.”

“야외활동은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젊은 선생님이라 친구들이랑 나들이 가는 것 같아 좋았어요.”

“그림도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이번에 처음 알았네.”

「다시 아이의 눈으로」

「당연한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을 때 비로소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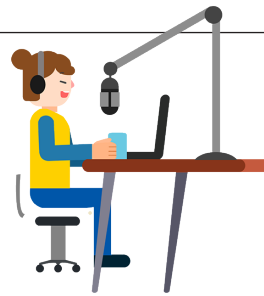
3시간의 수업도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하셔서 묻지 못했지만

“그림 속 진짜 나의 시선이 닿는 곳을 찾으셨나요?”



희희낭독 嬉嬉朗讀, 오디오북 창작자 과정

책은 이제 종이로 된 출판물과 전자책을 넘어 오디오북의 시대까지 이르렀다.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 넘어 언제 어디서나 향유할 수 있는 목소리의 온기와 가치. 오디오북 원고를 직접 작성, 합평하고 낭독하여 스튜디오 녹음을 통해 건실한 나만의 결과물을 만드는 프로그램 「희희낭독 嬉嬉朗讀, 오디오북 창작자 과정」 제작된 오디오 녹음본은 콘텐츠로 플랫폼에 게시될 뿐만 아니라 개인 소장물로서 간직할 수 있도록 했다. 글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강의와 체험이 녹아있는 오디오북 창작 과정.



지영 : 계획 없이 갑자기 떠날 그날을 위해 열심히 근로소득을 얻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오늘도 나는 핸드폰으로 여행을 떠난다. (잊지 마, 마카오 中)
혜영 : 길을 잃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놓여
진다는 것.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느끼는 감정은 떨림, 두려움 그리고 기대
(익숙함에서 벗어나 길을 잃다 中)
유진 : 지구가 이렇게 계속 뜨거워지면 우리가 먹는 음식도,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평범한 일상도 모두 사라질 거래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제주도에 사는 소은이 中)

25주에 걸친 글쓰기는 고된 과정이었지만 아주 오랜만에 잡아본 펜의 감촉과 혼란한 문장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목이 쉬도록 했던 녹음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2022년의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목소리도...



2022 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 프로그램 지원

2022 생동감 ‘사드락 사드락 생활문화’

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동호회 간 교류활동을 확장해 건강한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을 돕고자 추진되었다. 인후생활문화센터는 2년 동안 이어진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 생활문화동호회와 지역 커뮤니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문화의 즐거움을 누리하고자 다양한 대면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선생님!! 이거 뭐하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이 사진 예쁘게 찍어주신대. 리본 머리띠 하고 찍어볼까?”
“치즈!! 나 치즈 좋아해요!!”
“이거 그림 이렇게 찍으면 돼요?”
까락까락 즐거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안골 어린이 공원! 인근 ‘정선어린이집’과 ‘지혜의 숲 어린이집’ 어린이 친구들과 유희공간을 즐거운 놀이 공간으로 만들어 보았다.
재미있게 놀아줘서 고마워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선생님이랑 또 놀아주세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인근 ‘위브 어울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연령대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올해 특별했던 점은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3개 동호회와 작년에 함께해 주신 ‘기린동네예술노리단’, ‘마술사랑 동호회’ 등 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소속된 2개 동호회와 연계하여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고고장구 공연 정말 재밌네. 벌써 다 끝나 버렸어?”
“얼른 와!! 이거 만들어~ 글씨가 너무 예쁘네.”
“이 교복 웃기 부분은 늘 우리 어머니가 풀 먹여서 뽀뽀하게 해주시곤 했는데.”
“세상에.. 청춘이 었그제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늙었네.”



계단갤러리 & 전시

캘리바라기동호회

캘리의 다양한 서체를 연습하며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호회로 서로의 아낌없는 격려로 실력을 쌓아가고 있으며 발현된 재능을 토대로 전시회를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쏘잉매직동호회

한땀한땀 프랑스자수를 놓으며 다양한 기법을 공유한다. 생활소품제작, 브로치, 뜨개 등 손끝에서 피어나는 창작활동을 펼치며 플리마켓, 체험 등을 통해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



이석재 작품전

은퇴 후 캘리그래피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캘리 뿐 만 아니라 서각, 목공예, 수묵화 등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다. 올해는 실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서예문인화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하였다.



김정자 작품전

'내 나이가 어때서' 인생은 80부터 시작이라는 센터 봉사 어르신이다. 손바느질로 버선, 복주머니, 땡기, 노리개 등을 만들고 비단실로 자수를 놓아 작품을 완성한다.



주민제안 프로젝트 With 이후는 지역주민들이 동네에서 일상 속 문화 활동을 통해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체 프로젝트이다. 이후1동 마을계획추진단과 협력하여 마을 가꾸기, 지역문화탐구, 문제개선, 문화콘텐츠 발굴 등을 주제로 공모를 통해 10팀을 선정했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모네의정원 ★ 붓 끝으로 그리는 마법

코로나로 침체된 일상에 천아트를 알리고 경력 단절 주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천아트 동아리를 결성했다. 어울림 도서관을 활동공간으로 꽃그림 강의와 연습을 통해 에코백, 파우치 등 작품을 만들어 동네주민들을 대상으로 체험진행, 플리마켓참여, 지역사회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향후 좀 더 다양한 세대의 이웃들과 소통하고, 의류쓰레기의 새 활용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라글월 ★ 부모들이 읽어주는 책과 함께 즐기는 책 놀이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책 읽기를 강요하는 어른이 되기보다는 재미있게 책 읽는 방법과 책을 통해 여러 가지 놀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자 결성 되었다. 도서관이 많은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서수업을 개발하여 진행했다. 스마트폰게임과 넘쳐나는 미디어콘텐츠에서 잠시 벗어나 종이책과 친해지고 또래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



콘크리에이터 ★ 콘텐츠 크리에이터

고향에 한 자락의 공간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곳에서 마음 한켠에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추억에 잠기며 힐링이된다. 이후동에 살고 있는 자신, 마을, 공동체의 현재 모습을 그림이야기로 아카이빙 하고자 한다. 지역의 작가들에게 독립출판의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고 기획, 원고, 이미지제작, 편집 등 문집 출판의 전 과정을 배워갔다. 멤버 각각 맡은 분량의 원고를 작성하고 자신의 콘텐츠를 창조적으로 표현한 콘크리에이터 문집1호 '짓다'를 발간했다.



도당산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

★ 도당산을 가꾸고 훼손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

도당산 생태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이 모여 도사무를 만들었다. 도당산의 훼손을 막고 100여종의 동·식물을 지켜 더 많은 주민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당산을 가꾸어 나가기로 했다. 쓰레기줍기, 샛길이용금지, 나무뿌리 밟지 않기, 도당산 생태지도 제작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여 도당산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에게 홍보와 참여를 독려했다. 도당산의 깨끗한 환경조성, 위험한 곳 관리, 안내판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오랫동안 몸과 마음이 쉬었다 갈수 있는 이후동의 힐링 공간으로 남게 하고 싶다.



꽃들에게 희망을 ★ 인후의정원

팬데믹 사회속에서 바쁘고 지친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원예를 활용한 화분가꾸기, 반려식물기르기, 우리동네 작은나무 꾸미기 등 식물식재와 원예심리 교육을 동네주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인후의 정원은 나를 가꾸고, 가정을 가꾸며, 더 나아가 인후1동 우리 마을을 함께 가꾸면서 어른을 공경하며, 아이들을 함께 키워내는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고자 한다.



다정한 책갈피

그림책은 모든 이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접하는 책이자, 성인이 되어서도 함께하는 친구이다. 우리 다정한 책갈피는 그림책 모임을 하고 있다. 작가와의 북 토크, 그림책과 연계한 원예 독서테라피 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모임중단으로 단절된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었다. 앞으로도 그림책과 친구하며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지지하며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주민들과 동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인후동 시 낭송회 ★ 우리동네 시 낭송

동네주민들이 시 낭송을 통해 인후동에 대한 이해와 애착심을 높이고 시 낭송하는 마을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월2회 만남을 통해 시를 쓰는 사람의 마음 갖기,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 시 써보기, 낭송하기 등 교육을 하고, 우리 동네 지명과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동네이야기를 소재로 창작시를 짓고 지역주민들을 한데 모아 시 낭송 발표회를 가졌다. 향후 지속적인 동호회 모임과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창작시 낭송을 통한 지역사랑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 안골 ★ 살기 좋은 우리 동네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동네를 만들어가고자 웅달샘도서관 운영자들이 모임을 만들었다. 동네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줍기(줍깅)를 했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행정기관에 요구하고, 학생들의 휴먼 장소를 발견하면 금연을 권유하기도 했다. 동네 곳곳에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어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함께 정기적인 줍깅 캠페인을 벌여나갈 생각이다.



기린동네예술노리단 ★ 우리는 마을에서 논다

다른 지역에 비해 마을 행사가 많은 우리동네에 예술놀이단을 만들어 노래, 춤, 전통놀이 등 개개인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다. 가요, 민요, 장구반주 등 기초교육을 마치고 위브어울림 경로당에 찾아가 치매예방을 위한 손놀이, 신나는 율동, 고고장구 공연 등을 진행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마을에 애정을 갖고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누구도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한 인후동을 만들어 가고 싶다



육학년일반 ★ 해뜨는 인후동네

복일초 6학년 학부모들로 오랜 시간 지역에 거주하며 모임을 가져왔다. 이제는 아이들도 성장했고 단순친목도모보다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보자고 뜻을 모았다. 우리지역에 새로 유입되는 주민들에게 동네를 소개하고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일들을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해뜨는 인후동네 유튜브를 개설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우리지역이 즐길거리, 볼거리, 맛과 멋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전주의 핫 스팟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다.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 및 활동 거점으로서 지역공방과 재주 있는 동네 수공예 활동가를 발굴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다양한 창작 활동 추진을 위해 마련된 '인후 Makers 주간!!' 1인 1취미 활동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향후 지속적인 활동과 특색 있는 문화컨텐츠를 계속 발굴하고자 하였다.

석고방향제 & 디퓨저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방향제는 구입 당시엔 괜찮아도 집에만 오면 머리가 아파 사용하기 힘들 때가 많다. 인후동에 있는 공방 '소망트'의 강사님께서 차분하게 진행해 주신 덕분에 내 취향에 맞춰 디자인할 수 있는 디퓨저와 귀여운 미니언즈 석고방향제는 은은한 향기와 더불어 참여자들의 기분도 설레게 해주었다.



알려주시는 주의사항을 자세히 듣고!!



조심조심 내가 예쁘다고
생각한 대로 배치

원하는 향을 흘리지
않도록 넣어주세요.



짜잔!! 예쁘게 포장까지.

몰드에서 나온 똑같은 미니언즈도 칠해지는 색에 따라 각자의 개성과 독특함을 느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집에 예쁘게 배치해서 좋은 향이 날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참여자 모두가 좋아해 주셨던 Makers의 첫걸음. 인후동에 살며 모두가 문화를 가볍고 편하게 누리며 자신의 취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친환경 샴푸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기업 및 사람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무심코 사용하는 액상 샴푸와 화장품에 함유된 환경 호르몬을 유발하는 합성계면활성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고체 샴푸바 만들기'



이번 Makers 주간이 특별했던 것은 40~50대 여성이 주 참여자였던 것과 달리 부부, 커플, 친구 등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방문해서 인후생활문화센터와 지역 공방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다.



샴푸바가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랩을 씌운 상태에서 3일, 벗기고 4일을 숙성시킨 후 사용할 수 있다. 헝구고 나면 머리가 뽀뽀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액체샴푸보다 두피에 샴푸가 남지도 않고 수건에도 잘 닦여서 드라이 시간도 단축된 것 같다는 후기가 인상적이었다.

"친환경? 어렵지 않아요!"

유리공예 냄비 받침

꼭 시도해 보고 싶지만,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공예 중 하나가 바로 유리공예다. 특히 유명 연애프로그램에 나와 화제가 되었던 탓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지역에선 어렵다고 어렵겠구나...'라는 우려가 무색하게 인후동에 이름도 멋진 '공방 사적인 시간'과 함께 만들었던 간단하지만 특별한 냄비 받침!!



유리를 직접 세공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 미리 준비해 주신 알록달록 유리조각을 원하는 대로 놓아 모양을 만드는 간단한 작업으로 금세 완성되었다.

"여기서 이런 수업 자주 열리나요?"
"너무 즐거웠어요. 홈페이지를 보면 소식을 알 수 있나요?"

"다른 것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선생님 공방은 어디에 있나요?"
"제일 많이 하는 유리공예가 뭐예요?"



공방, 주민, 동호회, 센터 등 저마다의 성격이 다른 단체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앞으로 다양한 플리마켓, 축제, 문화거리 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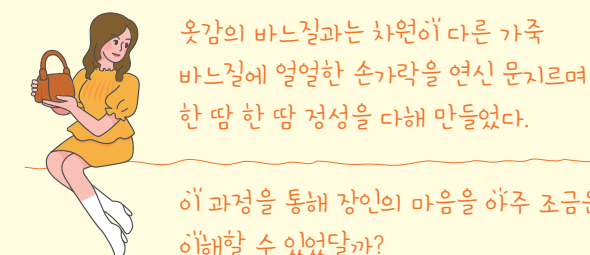
마크라메 도어벨

‘마크라메’는 13세기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서양식 매듭 공예로, 마크라메라는 명칭은 아라비아어 ‘migramah’에서 유래하였다. 뜨개바늘을 이용하여 레이스를 만드는 뜨개질과는 달리 마크라메는 다른 도구 없이 오로지 손을 이용하여 끈으로 매듭을 엮어 작품을 만든다. 간단한 손놀림으로 작은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 보았던 유익한 시간!



가족공예 토트백

가족공예는 인후생활문화센터에서 늘 사랑받는 프로그램이다. 비싼 비용과 더불어 공방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배워봐야겠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크진 않지만 작고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기 좋은 귀여운 토트백이 색깔별로 완성되었다.



지역의 공방과 연계하여 1인 1취향을 찾아보았던 순간!
모두 즐거우셨나요?
내년에도 더 흥미롭고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만나요~

퀼트 토끼키링



직장인들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문화 활동에서 소외되기 쉽다. 토요프로그램 진행시 직장인들이 아이들을 수업에 참여시키고 기다리는 시간에 손바느질 체험기회를 주어 취미생활의 물고를 터주고 싶었다. 센터를 오가며 가장 관심을 가진 퀼트를 선정했고, 한담한담 토끼가 만들어 지는 과정을 보면서 몹시 뿌듯해하며 의미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며 행복해했다.



다육이 미니정원



코로나로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가는 중에도 햇빛 찬란한 봄이 다가 왔다. 식목일을 맞아 넬솔이라는 특수 흙을 사용하여 다육식물을 심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 환경을 위한 나의 행동이 환경보전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때에 오랜만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다.



가을을 입다

하늘은 높고 울긋불긋 자연은 색을 더해가는 멋진 가을 날!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고 오랜만에 어디론가
홀짝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날!
한담 한담 자수로 수놓은 예쁜 조끼를 입고
가을 속으로 떠나볼까요?

내가 만든 베리 굿~~^^
사진도 찰칵!

오랜만에 느껴보는
힐링+유희



책마을

인후1동의 중심인 안골에 위치한 인후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11년째 성장해 오고 있다. 지역민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지적 성장을 돕고 다양한 독서문화를 제공하여 평생학습의 장이자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도서관의 아버지 랑가 나단이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라고 한 말처럼 지역민들의 리즈를 반영하여 시스템, 프로그램 내용 등을 개선하고 개발하면서 더욱 성장하고 있다.

도서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년 넘게 지속된 팬데믹 상황은 이를 반영할 수 없게 만들었다. 예약대출 이외 모든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해지면서 문화적 혜택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 맞추어 인후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은 키트를 제작 배포하여 유튜브를 통한 프로그램도 진행하였고, zoom 활용하여 독서동아리 활동도 가능하게 해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왔다. 올해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어 대면수업이 가능해지면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과 독서문화활동을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도서관이 다시 예전의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다행스럽다.

도서관 이용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토요일은 10시부터 15시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단,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이다. 전주시립도서관 대출증 소지자에 한해 한사람 당 10권까지 2주 동안 대출이 가능하다.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주시립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의 자료검색과 대출여부가 가능하며 3권까지 전주시립도서관 도서의 상호대차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편리함도 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 도서관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인후생활문화센터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독서문화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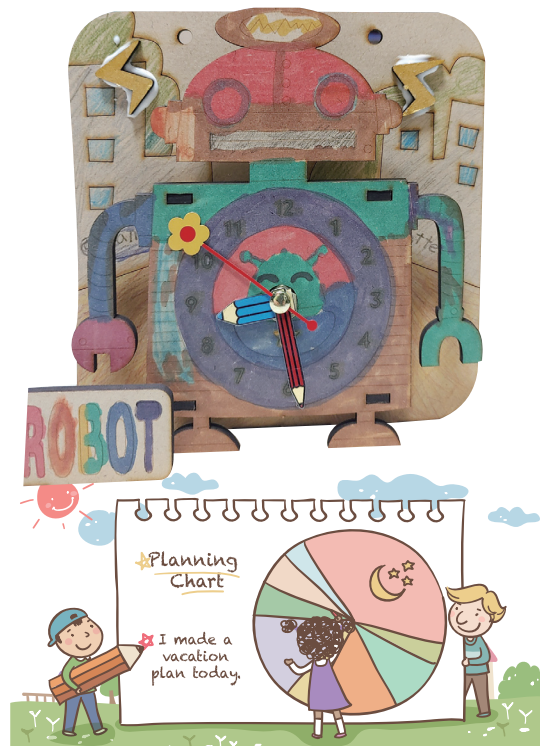


책은 일상의 연장선 이기도하고 새로운 삶의 간접경험 통로이기도 하다. 책을 통해 소통하고 이를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접목하여 경험의 다양성을 제공, 폭넓은 문화 활동의 향유를 위해 노력중이다. 2022년 한해는 책의 멋 과 맛을 주제로 맛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한 연령층이 도서관을 자주내방하고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추진했다.

시간 관리의 달인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이 만연한 2022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한해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방학동안의 계획표도 짜보고 직접 시계도 만들어 시간 관리하고 활용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계획표와 시계만들기 키트를 함께 배포하여 유튜브에 올린 독후활동과 시계만들기 영상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4월 23일 책의 날!!

독서 증진과 출판 장려, 저작권 보호 촉진을 목적으로 유엔이 지정한 세계 기념일!



초등생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된 프로그램!

집에 있는 책도 읽고 책 내용을 담은 하나뿐인 인생내컵도 소장해 보고 일회용품 줄이기에에도 일조하는 일타쌍피의 효과



성인을 대상으로 매듭끈을 활용하여 예쁜 책갈피를 만들어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와 지인에게 책과 함께 선물하여 책 읽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했다.



책과 함께하는 살림이야기

주부님들 살림하기 녹녹치 않으시죠?

즐겁고 행복해지는 살림살이 해보실까요? 가정에서의 주부의 위치에 대한 생각과 나의 살림 노하우를 공유도 해봤다.

그림책을 읽고 주인공을 앞치마에 그려 넣어 책과 함께하는 살림이야기를 만들어 보고자 했다.

살림 중에 잠깐 짬을 내어 그림책 한권 속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자라나는 꿈나무!

나눔의
행복



현대사회가 가족구성원이 단순화되면서 개인주의와 이기심으로 나누고 양보하는 미덕이 사라지고 있다. 인근 어린이집 유아들과 함께 '무지개 물고기' 그림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았다. 무지개빛 예쁜 물고기조명등도 만들어 또래와 함께하는 즐거움도 만끽해 보는 시간이었다.



꾸다의
꿈



'꼬끼오!~~' 꾸다는 개성 강한 닭이에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닭이지요.

우리 아이들은 과연 자신만의 생각으로 미래의 꿈을 디자인 하고 있을까? 꾸다를 통해 본인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보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아이로 성장하기 바란다.

나만의 멋진 달걀비누도 꾸며보고 너무 너무 신나는 시간이었다.



신나는 여름방학

수리수리 마수리



오랜만에 생활문화센터에 초등생들로 활기가 넘친다.

『빨간부채 파란부채』

그림책을 통해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교훈도 얻고

역할극을 통해 재미와 자심감 뽐뽐! 말판을 만들어

주사위놀이도 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승패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소원을 말해봐

우리 초등친구들이 진정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칫 부모님이 그려놓은 로드맵에 본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조종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내 소원』 그림책으로 역할극도 해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독후활동으로 아크릴 조명등에 나의 소원 쓰고 매일 점등해 보면서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나 자신을 응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마음만은 벌써 한가위 송편만들기

2020년부터 3년째 진행되어온 인후생활문화센터의 특화프로그램이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시작될 즈음에 어른들에게 옛 추억을 소환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명절풍습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온 가족이 둘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가족 간의 화합과 애정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만드는 방법을 유튜브로 제작, 송출하여 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쫄깃 고소한 송편! 앞으로 꼭 인후와 함께 해요.



「한 잔 할래요?」

설마 인후생활문화센터에서 술을? ㅎㅎㅎ

전주시 인문주간 6회를 맞아 올해는 '인문학으로 잇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삶을 잇다, 세상을 잇다, 고전을 잇다의 세 분야로 나누어 다양한 인문학 수업을 진행했다. 전주시 인문평생교육과에서 주관한 프로그램으로 인후생활문화센터는 박일두선생님(전주전통술박물관장)을 모시고 전통술의 정의와 누룩이야기, 여러 나라의 발효 술을 이해하는 인문학을 기획하여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알고 계승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우리 전통술과 문화정체정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진짜 술이 있는 프로그램을 기대한 듯 하다. 다음에 고려해 보는 걸루 ㅋ



낭독콘서트 '마당을 나온 암탉'

2021년에 이어 전주시립극단에서 주최한 '마당을 나온 암탉' 낭독극!

공연문화를 접하기 힘든 시기에 인근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책(도서)작품을 알리는 기회!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양질의 공연예술 향유 기회!

웃음으로 때론 아쉬움으로 공감하면서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몸소 터득하는 시간이었다.

공연관람 예절 A+++

내년에도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하자.



2023년도 인후생활문화센터 문화강좌

* 교육 및 동호회 프로그램 수강생 수시모집 *

구분	프로그램	대상및수강료 (1개월)	요일	시간	비고
교육 프로그램	드럼	4만원	토	10:00~12:00	
	1시기타	4만원	토	13:00~15:00	통기타
	목요기타	4만원	목	19:00~21:00	통기타
	영어회화	4만원	수	10:00~11:30	
	수채화교실 A	4만원	수	10:00~12:00	
	수채화교실 B	4만원	수	14:00~16:00	
	붓 펜 캘리그래피	4만원	월	14:00~16:00	
동호회 프로그램	전주만돌린양상블	자체회비	월	10:00~12:00	만돌린연주
	웰빙요가		화.목	09:50~10:50	요가
	테라피요가		화.목	11:00~12:00	요가
	인후보태니컬아트		목	14:00~16:00	보태니컬아트
	꽃길캘리그래피		화	10:00~12:00	캘리그래피
	캘리바라기		화	14:00~16:00	캘리그래피
	먹으로 그리는 세상		월	10:00~12:00	수묵일러스트
	천둥소리		월	10:00~12:00	풍물
	버들강아지		화	13:00~15:00	통기타
	쏘잉매직		수	14:00~16:00	프랑스자수
책마루 (독서동아리)	필로소피아	자체회비	월(3주)	10:00~12:00	
	북 마스터클럽		월(2,4주)	15:00~17:00	
	그림책여행		목	14:00~16:00	
	슬로우리딩		목	10:00~12:00	
	또바기		월	10:00~12:00	
	풍당그림책		월	17:00~18:00	

※ 수강생 모집현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강문의 247-8800

인후생활문화센터 & 작은도서관 사용 설명서



전주시민 누구라도 상시 이용가능

평 일 : 9:00~18:00

토요일 : 10:00~17:00 *도서대출 15:00까지

일요일, 법정공휴일 : 휴무

이용시간은 프로그램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작은도서관 도서대출 : 1인당 10권 / 대출기간 14일



문화창작실(100㎡)

- 요가, 드럼, 댄스, 통기타, 수채화 등 프로그램운영
- 음향시설, 빔프로젝트설치



정보사랑방(33㎡)

- 학습,교육, 동호회활동공간
- 소규모강의 및 회의
- 칠판, 이동식빔프로젝트설치



열린공간(71㎡)

- 소규모공연,음악회,발표회진행
- 지역청소년들의 연습공간
- 영화감상,풍물수업등 운영



안내데스크&복도(30㎡)

- 마주침공간으로 이용객응대 및 안내
- 사업홍보와 문화활동정보비치
- 이용객편의시설제공



작은도서관(120㎡)

- 10,000여권의 도서비치
- 지역주민들의 쉼터이자 공동체공간
- 전시, 나눔장터, 독서동아리활동운영



계단갤러리

- 프로그램 및 동호회원 작품전시
- 지역주민 누구라도 전시가능



센터(발코니)



출입문



2층 출입문

in Who?

2022년 12월 Vol. 6



발행일 2022년 12월 28일
발행인 고미숙
편집인 성은숙, 고금례, 한아름
발행처 인후생활문화센터 www.jeonjuculture.or.kr/inhoo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원로290 2F
TEL : 063) 247-8800

♠ 인후생활문화센터 자료집 'In Who?'는 전주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